

北 '광명성 3호' 로켓 연료주입 완료

한미 軍 추적체계 돌입

한미 군당국은 북한이 광명성 3호를 운반할 은하-3호 로켓에 연료를 주입함에 따라 로켓 추적체계에 돌입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11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켓)에 연료를 주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는 당장 12일에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 추적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는 대북 정보감시체계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단계 격상하고 정

보분석 요원을 증강하는 등 대북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측은 주일미군에 배치된 RC-135(코브라 볼) 정찰기를 서해 상공에 투입, 미사일 발사시설을 정밀 감시 중이다.

우리 군도 세종대왕함과 울곡이함 등 2척의 이지스구축함과 대공 레이다를 갖춘 구축함 5척과 구조함 1척 등을 서해상에 파견해 장거리 로켓 탐지에 돌입했다.

해군은 1단계 로켓이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산반도 서쪽 공해 주변에 함정을 배치해 로켓 파편을 최대한 수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北 노동당대표자회...김정은 1비서 추대

북한 노동당이 11일 평양에서 제4차 당대표자회를 열어 김정은 당 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당 제1비서로 추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당대표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17일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했다.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의 당내 공식 직함은 1비서이지만 사실상 총비

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는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김정은 동지를 노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하기로 결정했다"며 "김정은 동지를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한 것은 전체 당원과 인민군 장병,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세계 51개 도시서 탈북자 북송반대 시위

미국 주요 도시를 비롯해 세계 51개 도시의 중국 공관 앞에서 일제히 탈북자 북송반대 시위가 열렸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10일 낮 12시에 맞춰 열린 시위는 '북한 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KCC)'의 손인식 목사

들이 중심이 된 '해외 300인 목사단'이 마련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열렸고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지에서는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개최됐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초대형 지진 연쇄 발생

인도네시아 서단에 위치한 아체주의 인근 해에서 11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규모 8을 웃도는 초대형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인도양 전역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날 오후 5시38분 아체주 주도인 반다야체에서 남서쪽으로 432km 떨어진 해저 약 32km 지점에서 규모 8.6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USGS는 이어 오후 7시43분 반다야체에서 남서쪽으로 615km 떨어진 해저 16.4km 지점에서 규모 8.2의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에서도 진동이 감지될 만큼 강력했다. 이날 지진으로 인도네시아 반다야체 지역에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도 고층건물들이 흔들리면서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태국에서는 푸켓 공항이 잠정 폐쇄됐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해안지역에 높이 80cm 가량의 파도가 몰려오는 상황이 3차례 가량 발생했을 뿐 큰 해일은 목격되지 않았다고 현지 관리들이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진 충격이 수평으로 움직여 피해가 적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호남예산 지킴이' 새누리 이정현 후보

야권연대 조직력 밀려 석패 '지역구도 타파' 메시지 남겨

민주·개혁 진영의 본산인 광주에서 27년만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탄생 여부를 놓고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이정현 후보가 야권연대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11일 치러진 광주 서구 을 국회의원 원 선거 개표 결과, 야권 단일 주자인 오병윤 후보는 52.4%의 지지율 얻어 당선이 확정됐으며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는 39.7%의 지지율에 그치며 분투를 삼켰다.

비록 이 후보는 선거에서 석패했지만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광주에 '지역주의 타파'라는 정치적 화두를 던졌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에 걸친 지역을 지내며 지역 현안 사업을 약속같이 챙겨 '호남 예산 지킴이'라는 애칭을 받았던 이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서구 을에 도전장을 던져 지역민의 각별한 관심을 받았다.

여기에 서구 을이 야권연대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지 못해 지역 구도를

깨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어나면서 이 후보의 상승세가 시작됐다.

그의 선전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전선'에서의 민주당 후보들의 강세와 더불어 '지역구도 타파'라는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이를 발판으로 이 후보는 각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선거 일주일 전까지 선두를 차지하거나 접전 양상을 보이는 등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광주를 정치적 텃밭으로 두고 있는 민주당의 조직력에서 점차 밀리면서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야권연대에 반발,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출마를 고려했던 민주당 후보들이 '정권재창출'이라는 대의명분에 주저앉으면서 조직력 측면에서 야권 단일 주자인 오병윤 통합진보당 후보에 힘이 붙기 시작했다.

또한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선거 막판, 총력전을 펼치면서 정권재창출을 명분으로 지지를 호소, 분위기가 점차 반

전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선거 막판 '야권연대'와 '일꾼'을 두고 고민하던 지역 민심이 새누리당의 선전 가능성과 정권교체 여론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병윤 후보 지지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일을 하고 싶다.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지만 반전된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이 후보를 지지했다가도 막상 투표장에 가서는 결국 새누리당 후보를 찍지 못하는 지역 정서가 상당부분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도 타파'와 '민주당 통합' 독점 구도에 대한 근본적인 화두를 던졌다는 평가다. 호남 정치권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뒤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선거의 승패를 떠나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 후보는 지역구도 타파에 대한 실천적 메시지를 전한 것은 물론 호남을 정치



광주에서 27년만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탄생에 도전했던 이정현 후보가 11일 밤 낙선이 확정되자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적 텃밭으로 대해왔던 민주당 후보에게 경종을 울렸다"며 "비록 석패를 했지만 광주와 전남, 전국적

으로 이 후보의 도전에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투표율 54.3% 절충선... 판세 영향 없었다

광주 52.7%·전남 56.8%

19대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변수로 지목됐던 투표율이 54.3%를 머무르면서 전체적인 판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총선 투표 결과, 54.3%의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밝혔다.

전체 유권자 4천20만5505명 가운데 2181만542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전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작된 투표는 오전 9시 이전까지는 18대 총선 때보다도 저조한 양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날이 개고 오후로 접어들면서 투표율이 상승 폭을 확대, 당초 예상치에 부합하는

선에서 마감됐다. 이 같은 투표율은 역대 전국 단위 선거 중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던 18대 총선(46.1%)보다 8.2%포인트가 높아진 것이다.

지역별 투표율은 세종특별자치시(59.2%)가 가장 높은 반면 인천(51.4%)이 가장 낮았다. 서울은 55.5%로 평균 투표율을 상회했다.

▶부산 54.6% ▶대구 52.3% ▶광주 52.7% ▶대전 54.3% ▶울산 56.1% ▶경기 52.6% ▶강원 55.8% ▶충북 54.6% ▶충남 52.4% ▶전북 53.6% ▶전남 56.8% ▶경북 56.0% ▶경남 57.2% ▶제주 54.5%로 나타났다.

광주는 지난 18대 총선 투표율에 비해 10.3%포인트, 전남은 6.9%포인트 상승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 투표율이

54.3%라는 미묘한 절충선에 머무르면서 전체적인 판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초 55%가 넘으면 야권에 유리한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여권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투표율이 60.6%에 달했던 17대 총선에선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 18대 총선에서는 역대 최저인 46.1%의 투표율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대승을 거둔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절정 지역이 많았다는 점에서 54.3%의 투표율은 아무래도 야권에 조금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의원 300명 시대

19대 임기는 5월30일부터 4년

4·11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 246명과 비례대표 의원 54명 등 모두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헌정 사상 300명을 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19대 총선 당선자는 12일 국회의원 등록을 시작해 오는 5월30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어 국회의원 임기가 새로 시작할 때 열리는 개원 임시국회 자동소집 규정에 따라 임기 개시 후 7일째인 6월5일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가야 한다.

국회를 대표하는 2년 임기의 국회의원들은 첫 임시국회에서 재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일반적으로 제1당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지만 제2당이 다른 당과 연합해 특정

의원 당선시킬 수도 있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총선 이후 최초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즉, 19대 국회는 개원국회 개시 3일 후인 6월8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개원협상은 관례처럼 매번 지연됐다. 18개 상임위원장 중 중요자리를 차지하려는 여야 간 힘겨루기 때문이었다. 지난 18대 국회는 여당이 과반수였지만 야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반발, 개원을 거부해 첫 임시국회는 7월10일야야 개최했다.

이번 국회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개원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직원모집

저희 엘리시아는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에 위치한 씨푸드뷔페 레스토랑으로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의 리모델링 공사기간을 통해 동종업계 최고의 인테리어와 시스템으로 탈바꿈하여 5월1일 재 오픈을 함에 있어 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가족을 초빙합니다. 새로운 가족의 대우 또한 동종업계 최고가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모집부서	모집인원	대우	비고
카운터(캐셔)	사원 1명	연봉 1,900~3,000만원	용모단정한자
내선(인포)	사원 1명	연봉 1,700~3,000만원	용모단정한자
조리부	일식	남,여 0명	초보자 가능하며 경력자 우대
	양식	남,여 0명	
	중식	남,여 0명	
	한식	남,여 0명	
제과사	남,여 0명	연봉 1,700~3,000만원	
주방보조사원	여 0명		
영업부(홀서빙)	사원 1명	연봉 1,700~3,000만원	
아르바이트(홀서빙, 조리보조)	준사원 1명, 0명	시급 4,600~6,000만원	

복지 - 4대보험(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 상여금, 우수사원포상(특별휴가 및 포상금 지급)

휴무 - 월 6일 휴무보장(격주 5일근무)
- 학계휴가, 명절휴가(추석, 설날) 각 2박 3일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 1부
- 자기소개서 1부

서류접수처 - 엘리시아 상무본점 임시 예약상담실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3층
- E-mail 접수가능: bng640@hanmail.net

서류접수기간 - 2012년 4월 14일까지

면접일자 - 2012년 4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
- 이력서 현장 접수시 즉시면접 가능

연락처 - ☎ 062)385-3000 FAX 062)385-3306

홈페이지 - http://www.elysia.co.kr/
- 엘리시아 다들카페: http://cafe.daum.net/elysiaaa

엘리시아 상무본점

독일보청기백화점

철저한 독일인의 장인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터사 보청기 환영)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 062)222-0527

공무원 대 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1. 대상 - 현직공무원, 기능직, 교직원, 군무원
2. 한도 - 300~7000만원
3. 금리 - 연-5.9%미만 (천만원당 55만원미만)
4. 기간 - 1년~10년 중 선택 (본인선택, 연장가능)

◆과다대출, 연체(등금미달)자도 가능!!
◆고금리 대출 사용자 →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개인회생자, 신용불량자 → 100~500만원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한도는 변동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담담 010-7112-3135 (대부 제 644호)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관리 철저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연 6%정도 (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금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가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담 010-5554-2100 (대부 제 642호)